

No.88

Japan Weekly Digest

2011. 5. 28. ~ 6. 3.

☐ 금주의 이슈

- 간 내각 불신임안 부결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日-EU 경제동반자협정(EPA)협상 개시 합의

☐ 일본기업전략

- 일본기업, 젊은 CEO로 세대교체
- 일본기업,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M&A 가속화
- 소프트뱅크, KT와 데이터센터 합작회사 설립

☐ 보고서 리뷰

- ‘동북대지진 부흥구상회의’ 중간 결과 발표



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간 나오토 총리 내각 불신임안 부결

- 자민당, 공명당, 일어서라 일본당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간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부결되었음
- 2일, 의회에서 총투표인수 445표 가운데, 찬성 152표, 반대 293표(결석·기권 33표)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 처리됨
-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간 총리의 리더십 부족, 정책실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있어 정권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
- 간 총리가 2일, 민주당대회에서 자진 퇴진하겠다고 표명함으로써, 민주당 오자와파의 투표성향이 찬성에서 자율투표로 바뀐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
- 하토야마 前총리도 간 총리의 의사결정에 대해 “중대한 결단을 했다”고 하면서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
-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자와파가 자율투표로 결정함으로써, 불신임안 가결에 필요한 82명 이상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음
- 간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지진 피해지역의 부흥이 지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도 부결 처리된 요인으로 작용
- 지방의 민주당 관계자나 자민당 의원들도 이번 결의안에 대해 △일본경제의 위기적인 상황, △피해지역의 부흥 등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싸움으로 비쳐지면서 부정적으로 작용
- (정치적 영향) 불신임안은 부결이 되었으나, 민주당 내부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되어 간 정권의 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측
- 정책적으로는 자민당 주장이나 민주당내 오자와-하토야마 그룹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
- (경제적 영향) 이번 불신임안 상정으로 일본정치가 더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, 일본경제의 부흥이 지연되고,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일본-EU 경제동반자협정(EPA) 협상개시 합의

- 일본은 EU와 경제동반자협정(EPA)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
- 간 나오토 일본 총리, 헤르만 반 롬퓌이 EU의장, 주제 마누엘 두랑 바로수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정상회담에서 EPA협상 기반조성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
 - * 일본에게는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한편 EU는 기준인증 등 비관세장벽 및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
 - * EU는 중국, 미국에 이어 3번째 무역 상대국 (10년 13조 5000억엔)
- 일본과 EU는 「공동기자성명」을 발표하고, 예비협상은 「가능한 빠른 시기」에 시작한다고 명시
 - 간 나오토 총리는 “높은 수준의 경제연계를 목표로 하고 싶다”고 표명하였고, EU의장은 “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”, EU위원장은 “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”고 언급하면서 연내에 교섭을 시작할 예정
 - * **일본은 자동차, 슬림형TV, 액정모니터 등 높은 관세철폐를 요청할 방침**이고 EU는 일본과의 FTA에서 특별한 메리트는 없지만, **일본의 부흥을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EU내에서 조성된 것이 합의 요인**
 - * 수출관세 : 자동차(10%), 슬림형TV·액정모니터(14%)
- 기타 합의사항
 - **원자력안전 협력**에 관한 공동문서를 발표
 - 에너지정책에서는 **재생가능에너지 연계를 강화**하고 **태양전지의 공동연구프로젝트, 전문가교류도 촉진**시킬 방침

□ 일본기업전략

○ 일본기업들 젊은 CEO로 세대교체

- 내수 침체, 엔고 등 사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본기업들이 ‘젊은 CEO’ 주도로 개혁을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닛케이신문이 30일 보도
- 일본기업들이 50대 전후의 CEO를 주축으로 사업모델 개혁에 착수. 내수시장 위축과 엔고 현상, 그리고 대지진 여파 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전략
- 일본 오므론은 49세인 야마다 상무를 CEO로 승진시킬 예정이고, 화장품업체인 시세이도는 52세의 스에카와 상무를 CEO로 임명
- 이런 젊은 CEO들의 특징은 △기존 사업모델에 집착하지 않고, △빠른 의사결정, △개혁에 의욕적 이라고 평가받고 있음

○ 일본기업,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M&A 가속화

- 일본기업들에 의한 해외기업 M&A는 가속화되고 있음. 지진발생 이후 두달반 동안 12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1% 증가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
- 풍족한 여유자금과 엔고라는 환경도 있고 △성장시장 개척, △생산시설의 해외분산을 고려하여 해외기업에 대한 M&A를 강화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내수 축소와 글로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들이 이번 지진으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대응 수단으로 M&A를 본격 활용하고 있음
- JP모건 관계자는 “지진피해 영향으로 향후 생산거점의 해외분산을 겨냥한 M&A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” 라고 언급

○ 소프트뱅크, KT와 데이터센터 합작회사 설립

- KT-일본소프트뱅크텔레콤은 한국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시장에 진출한다고 30일 발표
-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일본국내에만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일본기업의 니즈에 대응하려는 목적
- KT와 소프트뱅크는 9월까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, 김해에 일본기업전용 데이터 센터(ktSB Data Services)를 구축하여 일본기업들의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

□ 보고서 리뷰

‘동북대지진 부흥구상회의’ 중간 결과 발표

⇒ 일본정부는 29일, 제7차 ‘부흥구상회의’를 개최하고, 피해지역의 세제우대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「부흥특구」를 창설키로 합의

□ 부흥구상회의 내용

-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「지역경제사회의 재생」 「새로운 국가재건」 등 5개 분야의 부흥계획임
 - 미야기현 지사는 부흥특구에 농림수산업과 의료복지 등 8개 분야에 향후 10년에 걸쳐 특구를 설치하는 구상을 제안
 - 부흥회의에서는 “태양광 등 신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진흥에 역점을 둔 특구를 검토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
- 어업 등 수산업 정비방안도 담겨있으나, TPP 참가를 위한 농업개혁 검토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△회의 명확한 방향성, △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

	동북대지진 평가
①	- 지진, 쓰나미, 원자력 사고 등 복합 피해 - 10~20년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함
	도시조성, 재개발
②	-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, 감세 등을 실시하는 ‘부흥특구’ 창설 - 쓰나미에 대한 기본대책은 집을 높은 곳으로 이전
	지역경제 재생
③	- 태양광 등 신에너지로 산업진흥 - 제조업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 제공 - 농지의 대규모 집약화 등으로 저비용화
	원전사고 대응
④	- 원인규명과 국제사회 신뢰회복 - 후쿠시마현을 신에너지 대표도시로 육성
	국가의 대응
⑤	- 소득세, 소비세 등 증세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- 수도 기능의 일부 이전

□ 향후 계획

- 6월말에는 일본경제 전체의 성장과 연결되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
 -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복구재원 확보 방안을 보완하여 사회보장과 세제개혁안을 동시 발표 예정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- (1) 『세계경제의 조류』 내각부, 5월31일

*출처: http://www5.cao.go.jp/j-j/sekai_chouryuu/sh11-01/index-pdf.html

- (2) 『중국에서 아시아로 타겟을 넓히는 일본기업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5월31일

*출처: <http://www.mizuho-ri.co.jp/research/economics/pdf/report/report11-0530.pdf>

- (3) 『미래도시 프로젝트』 경제홍보센터, 5월31일

*출처: <http://www.kkc.or.jp/data/pub/00000071.pdf>

- (4) 『일본환경기술의 국제전개』 환경성, 6월1일

*출처: <http://www.env.go.jp/press/press.php?serial=13847>

- (5) 『해외에서의 일본제품 이미지조사』 하쿠호도, 6월2일

*출처: <http://www.hakuhodo.co.jp/pdf/2011/20110601.pdf>

- (6) 『IAEA 원전사고 조사보고서』 IAEA조사단, 6월2일

*출처: http://www.kantei.go.jp/jp/topics/2011/20110601iaea_tyousa.pdf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5월30일(월)	○ 정부사회보장에 관한 집중검토회의 개최 ○ 5월 지역경제동향 발표(내각부)
5월31일(화)	○ 일-페루 EPA 서명 ○ 일-인도네시아 정책대화 개최(경산성) ○ 4월 실업률 발표(총무성) ○ 4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
6월 1일(수)	○ 간 총리, 민주당·공명당 당수토론회 개최 ○ 닛산자동차, 미쓰비시자동차와 합작회사 설립
6월 2일(목)	○ 1~3월기 법인기업통계 발표(재무성) ○ 5월 Monetary base발표(일본은행)
6월 3일(금)	○ 5월 미국고용통계 발표 ○ 샤프, 11년도 실적전망과 액정비즈니스 설명회 개최